

한국식량안보재단 창립2주년 및 출판기념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봄이 깊어가는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창립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왕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식량공급과 식품안전을 지키는데 큰 목표를 설정하고 발족한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식량안보재단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이사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선각적인 연구재단을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신 이철호 이사장님, 사무국과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 드립니다.

따뜻한 봄날, 화창한 기운이 감도는 귀한 저녁 시간을 만장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저로서는 더욱 영광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펴낸 단행본 <식품산업, 한식 세계화에 날개 달다>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기획단계에서는 거창해도, 실제 결과는 웅색해지는 경우가 흔한데, 정말 보석과 같은 결과물을 빚어내신 듯합니다.

우리의 식품업계를 대표하여 이 책의 필진으로 참여하신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식 세계화는 지난 몇 년 간 민족적인 과업으로 부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를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식품산업, 한식 세계화에 날개 달다>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식량안보재단의 역점사업인 저술 출판 활동에도 날개를 달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이철호 이사장님은 대한민국의 식량공급과 식품안전을 지키는 수호천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품공학자로서 국내 외적으로 세운 공적이 빼어난 점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사재를 종자돈 (Seed Money)로 출연하여 만든 연구재단을 이끌어나가는 탁월함은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재단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산-학-연-관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식량안보 전문 연구기관으로써, 농어업과 더불어 식품산업을 식량공급의 주체로 설정하고, 식품산업의 사회안보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 합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식량자급 실천운동을 국가적으로 전개하면서 남들처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식품폐기물 감축방안, 식품안전 관리법규 합리화 방안, 식품가격 상승요인 등을 과제로 선정하여 실천적인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발족할 때부터 이철호 이사장님의 눈부신 활동을 지켜본 바, 말로는 표현하기 부족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철호 이사장님을 앞장세우고, 때로는 이철호 이사장님을 디딤돌로 삼아 식품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한국식량안보재단의 영향력이 일취월장하여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환영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2.4.27

대선제분 회장 朴冠會